

제1절 구산리(邱山里)

1. 마을의 자연환경

굴타산 아래에 발달한 포구로서 구산(邱山)은 동쪽으로 동해와 닿고, 서쪽은 황보2리(黃堡二里), 남쪽에는 평해읍 월송2리 군무봉(軍舞峯)과 맞닿아 있으며 북쪽은 봉산2리(峰山二里)와 인접(隣接)하고 있다. 구산1리 마을회관은 2009년에, 구산2리 마을회관은 2004년에 건립되었다. 조선조의 울릉도·독도 수토를 위한 대풍헌이 있으며, 이는 일본과의 국토영유권의 실질적인 지배를 보여주는 역사적 현장이다. 최근 울진군은 대풍헌을 개축하고 대풍헌 전시관을 조성했으며, 마을 앞에 수토사 공원을 조성하였다. 2006년에 구산보건진료소가 개소하였다. 마을 입구에 있는 구산해수욕장은 울진의 대표 해수욕장이며, 송림을 중심으로 오토캠프장이 조성되어 있다.

2. 마을의 역사

신라말 중국 당(唐)나라의 구대림(丘大林) 장군이 귀화(歸化)하여 이곳에 정착하면서 마을 이름을 구미(丘尾)라 하였다고 전한다. 고려 말에 평해군수(平海郡守) 백암(白岩) 김제(金濟)가 지형이 거북의 꼬리와 같다 하여 구미(龜尾)로 개칭(改稱)하여 오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邱山里)로 편입되었다.

3. 가구 분포

총 305세대가 거주하며 김해 김씨(金海金氏), 순흥 안씨(順興安氏), 경주 이씨(慶州李氏), 안동 권씨(安東權氏), 밀양 박씨(密陽朴氏), 김녕 김씨(金寧金氏), 평해 손씨(平海孫氏), 파평 윤씨(坡平尹氏) 등이 분포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대풍헌(待風軒)

대풍헌은 조선조 울릉도·독도 관리를 위해 파견된 수토사(搜討使)가 머물던 객사이며 삼척 진영에 속했다. 지금은 마을의 최고 의결기구인 ‘노반회’의 집회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구산동사중수기(邱山洞舍重修記)’ 현판에 의하면 1851년(철종 2)에 중수했으며 최근에 경

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지붕, 담장 등을 개축했다. 특히 이곳에서 발견된 ‘수토절목(搜討節目)’과 완문(玩文) 등의 고문서가 독도영유권을 확인시켜 주는 소중한 기록으로 평가되면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울진군은 이곳에 국토영유권 해양역사관광명소로 조성하고 있다.

2) 백암(白岩) 김제(金濟) 선생과 도해암(蹈海岩)

고려 충절 문신 백암(白巖) 김제(金濟)가 남긴 절명시 2수를 새겨놓은 바위이다. 김제는 고려 공민왕 때 사람으로 1391년 평해군수 재임 중 고려가 망하자 불사이군의 충정으로 망국을 통탄하며 평해 기성면 구산리 북쪽 절벽 밑에서 충절시 2수를 지어 놓고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가 종적을 감췄다. 정조가 백암의 충의를 가상히 여겨 직접 초유제문을 지어 좌승지 이익운에게 구산리 앞바다에 제사를 올리게 하고 백암이 남긴 시 2수를 절벽에 새기게 하였다. 공사로 훼손된 것을 1985년에 복원했다. 김제는 선산 김씨로 예의판서(禮儀判書) 김원로(金元老)의 아들이다. 안동의 고죽서원(孤竹書院)과 울진의 운암서원에 배향됐다.

3) 운암서원(雲巖書院)

운암서원은 1827년(순조 27) 지방 유림이 물재(勿齋) 손순효(孫舜孝), 백암(白巖) 김제(金濟), 백계(栢溪) 김희(金禧)의 학행을 기리기 위해 세운 서원이다. 애초 온정 반암동에 건립됐으며 1835년에 온정 ‘노니실’ 마을로 옮기고 ‘노은서원(老隱書院)’이라 칭했다. 1868년 훼손됐다가 1878년에 기성 구산리 산록에 수일당(隨日堂)을 건립하고, 1930년에 지금의 자리로 수일당을 옮기고 사당인 충절사를 건립했다. 김제는 고려조에 평해군수를 역임했으며 조선이 건국하자 ‘도해시’를 남기고 절명했다. 정조가 해단(海壇)을 세우고 충개(忠介)의 시호를 교시했다.

제2절 기성리(箕城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동해(東海)와 접하고, 서쪽은 기성(箕城)들이 있으며, 남쪽은 정명천(正明川) 하류(下流)로 흑대산(鵠台山)이 있고, 북쪽은 사동리(沙銅里)와 인접해있다. 마을회관이 2009년에 건립되어 경로당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 정명천 하류에 맞은편 해안과 언덕을 연결하는 교량 공사가 진행 중이다.